

- 주요 뉴스: 미국, 캐나다멕시코에 관세 부과 1개월 유예, 중국과는 24시간 이내 대화
 - 미국 1월 ISM 제조업 PMI, '22년 9월 이후 최고치, 신규수주 등이 호조
 - 연준 주요 인사, 금리안하에 신중함 요구. 정부의 관세 부과 효과도 고려할 필요
 - 유로존 1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상승세 강화. 다만 기존 금리 전망은 유효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트럼프 관세 부과 우려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강화

주가 하락[-0.8%], 달러화 강세[+0.1%], 금리 상승[+2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급락 시작 이후 對멕시코 관세 부과 유예 등으로 낙폭 축소
유로 Stoxx600지수는 트럼프 무역전쟁 우려 등으로 0.9%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양호한 1월 ISM 제조업 PMI 등이 반영
유로화 가치는 0.2% 하락, 엔화 가치는 0.3%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 점증 등으로 상승 전환
독일은 장 초반 미국 국채금리 급락 영향 등으로 8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456.0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57.5원, 0.31% 하락). 한국 CDS 상승

주요지표					주요지표				
		2/3일	1/31일	전일대비			2/3일	1/31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994.6	6,040.5	-0.76%	국채금리 10y	미국	4.56%	4.54%	+2bp
	유럽	534.85	539.53	-0.87%		독일	2.39%	2.46%	-8bp
	중국	휴장	휴장	-		영국	4.49%	4.54%	-5bp
	일본	38,520	39,572	-2.66%	CDS 5y	한국	35bp	33bp	+2bp
	한국	2,454.0	2,517.4	-2.52%		중국	57bp	56bp	+1bp
환율	달러지수	108.46	108.37	+0.08%	위험지표	EMBI+	-	354	-
	유로화	1.0344	1.0362	-0.17%		VIX	18.62	16.43	+13.33%
	엔화	154.73	155.19	+0.30%		WTI유	73.16	72.53	+0.87%
	위안화	휴장	휴장	-	원자재	구리	430.6	427.9	+0.62%
	원화	1,462.0	1,453.5	-0.58%		금	2,815.2	2,798.4	+0.6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캐나다·멕시코에 관세 부과 1개월 유예. 중국과는 24시간 이내 대화

-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멕시코 세인바움 대통령과 통화를 했으며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유예할 것이라고 발표. 이를 위해 멕시코는 미국 국경에 1만 명의 군병력을 즉시 보내기로 동의했으며, 이들은 펜타닐 유입과 불법 이민자의 입국을 막기 위해 배치될 것이라고 설명
-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멕시코와 관세에 대해 합의한 것은 아니며, 향후 자국의 루비오 국무장관, 베센트 재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 등이 멕시코 대표단과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
-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트뤼도 총리와의 대화를 나누었으며, 캐나다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30일 유예하겠다고 발표. 캐나다는 이를 위해 '펜타닐 차르'를 신설하고, 마약 카르텔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하며, 펜타닐 및 자금 세탁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 타격부대를 출범시킬 계획
-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 관련하여 24시간 이내에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결국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 또한 이번 관세 부과는 시작에 불과하며, 합의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중국 관세는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
- 트럼프 대통령은 EU도 관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다시 밝혔고, 반도체 등 제품별 관세 부과도 고려한다는 신호를 발신. 시장에서는 아시아의 여타 주요 수출국도 관세 부과 예외는 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 한편 새로운 국부펀드 설립을 지시하고, 이를 통한 TikTok의 지분 일부 매입도 가능하다는 의견 피력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1월 ISM 제조업 PMI, '22년 9월 이후 최고치. 신규수주 등이 호조

- 1월 ISM 제조업 PMI는 50.9를 기록, 전월(49.3) 대비 상승했고, 작년 4월 이후 처음으로 확장의 기준 50을 상회. 이는 신규수주(52.1→55.1) 및 고용지수(45.4→50.3) 호조 등에 기인. 다만 이번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언급 전에 시행되었기에 일부에서는 향후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주장

■ 연준 주요 인사, 금리인하에 신중함 요구. 정부의 관세 부과 효과 고려할 필요

- 보스턴 연은의 콜린스 총재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기에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 또한 연준의 통화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 애틀랜타 연은의 보스틱 총재도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높기에 금리인하에 신중해야 한다고 발언

■ 유로존 1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상승세 강화. 다만 기존 금리 전망은 유효

- 유로존 1월 소비자물가지수(HCIP)는 전년동월비 2.5% 올라 전월(2.4%) 대비 높은 수준. 다만 전월비 기준으로는 0.3% 떨어져 전월(0.4%)에 비해서는 하락 전환. 한편 근원 HCIP의 경우 연간 및 월간 상승률이 전월비 보합 및 낮은 수준(각각 2.7%→2.7%, 0.5%→-1.0%)을 기록
- 이번 결과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다만 시장에서는 ECB의 금리 전망이 이전과 비교하여 바뀌지 않은 것으로 평가. ECB의 심카스 위원과 카지미르 위원 등도 당분간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 다만 역내 경기 둔화 및 미국의 관세 부과 등을 고려 시 신중한 자세도 요구된다고 첨언

■ 중국 1월 차이신 제조업 PMI, 4개월 만에 최저. 고용 부진 등이 반영

- 1월 차이신 제조업 PMI는 50.1을 기록, 확장의 기준 50을 상회했으나 전월(50.5) 대비로는 하락. 이번 결과는 무역 불안에 따른 고용 부진 등에 기인. 다만 신규수주 등은 관세 인상을 대비한 고객들의 재고 확충으로 증가세 지속

■ 일본은행, 향후 경제 및 물가가 전망에 부합한다면 금리인상 지속할 방침

- 1월 금융정책결정회의 의견 요약에 따르면, 다수의 위원들은 향후 경제 및 물가가 전망에 부합할 경우 금리인상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발언. 특히 이를 통해 마이너스 수준의 실질금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 또한 금융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2/4 현지시각 기준)

-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및 애틀랜타 연은 총재 발언
- 미국 12월 JOLTS 구인건수 및 공장수주, 스페인 1월 실업률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트럼프 관세, 독자적 정책 결정단기 충격 감수·동맹국 신뢰 훼손 등을 시사 - 블룸버그

(Three Unsettling Lessons From Trump's Tariff Drama)

-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다음의 3가지 시사점을 의미. 첫째, 경제 고문단의 점진적 관세 인상 권고를 무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 관세 인상을 독단적으로 결정. 둘째, 주가 급락 등 금융시장의 단기 충격을 감수. 이는 1기와 비교하여 시장 변동성에 덜 민감하다는 의미
- 셋째, 사실상 USMCA 파기로 동맹국 신뢰가 크게 훼손. 비록 캐나다와 멕시코가 경제적 격차로 미국의 의지를 따를 수밖에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대미 의존도 축소를 위해 여타 국가와의 무역 동맹을 강화할 가능성. 이에 향후 금융시장은 더 높은 수준의 트럼프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 트럼프 무역전쟁, 금융시장 혼란은 시작에 불과. 추가 변동성 확대 주의할 필요 - Reuters

(Trump's trade war salvo only the start of market pain)

-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교역국에 대한 협상의 수단으로 대규모 관세 부과 계획을 사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약화되자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인플레이션 재발, 연준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적 위험 등을 재평가. 트럼프 관세 부과 우려로 해당국의 통화 가치와 여타 주요국 주가는 급락했으나, 멕시코 관세 한 달 유예 발표로 일부는 회복
- 그러나, 캐나다와 멕시코는 경기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올해 유로존 성장률의 추가 둔화도 불가피(Lombard Odier). 물가 상승 위험에 대한 연준의 대응도 자국 및 세계 경제에 부담 요인. 이에 여타국 통화의 추가 약세와 미국 주식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상당 기간 지속될 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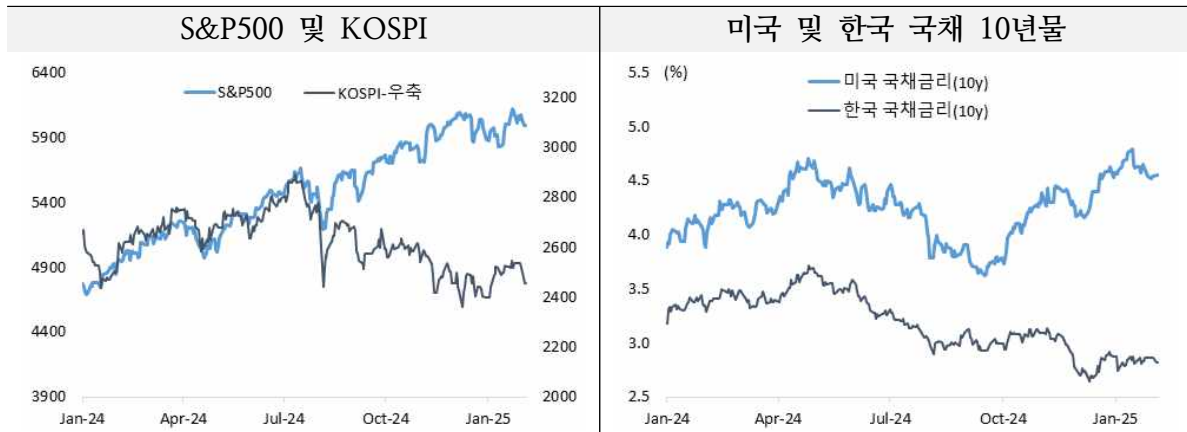
■ 트럼프의 우방국 관세 부과, 反美 동맹 형성 위험을 초래 - Financial Times

(Trump is sowing the seeds of an anti-American alliance)

- 트럼프 관세 전략은 미국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 뿐 아니라 서방 동맹 분열과 미국에 위협을 느끼는 국가들의 대안적 연합 형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그리고 이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기회로 작용할 소지
- 실제로 유럽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직면한 멕시코·파나마 등 중남미에서 영향력 확대를 모색. 영국과 일본도 향후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서방 동맹의 균열 가속화 가능성을 의미. 이러한 변화는 미국 기업과 국가 전체에 경제적·전략적 재앙이 될 우려

- **연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경제 여건에서 최고의 선택은 인내심일 가능성 - 블룸버그**
(The Fed's Best Bet Is Patience as Confusion Reigns)
 - 트럼프의 관세 및 감세 정책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다만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지, 세수의 장기적 원천으로 사용할지 등 궁극적 결론을 알기는 어려운 상황. 아울러, 최대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연율 2%) 달성에 근접하고 있어, 연준은 금리 결정에 시간적 여유를 확보
 - 이에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상황을 예단하고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것보다 1월 FOMC에서의 파월 의장 발언처럼 다소 제약적이면서도 '통상적인' 정책금리로 나아가기 위한 행보가 합리적일 가능성. 또한, 추측보다는 고용과 인플레이션 관련 확실한 경제지표도 확인할 필요. 백악관의 연준 독립성에 대한 암묵적 인정도 중요
- **미국 장단기 채권금리 격차 축소, 인플레이션 상승(경기)과 성장 둔화(경기) 우려 반영 - 블룸버그**
(Bonds Show Fear Tariffs Will Deliver Inflation, Growth Shocks)
- **미국 트럼프의 캐나다멕시코 관세 부과,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도 타격 예상 - 블룸버그**
(Trump's Tariffs on North America Also Set to Pummel Asian Allies)
- **미국의 對중국 관세, 4월 무역적자 원인 조사 발표 이후 추가 인상될 가능성 - WSJ**
(China Has Gotten Off Lightly on Tariffs—for Now)
- **자산시장에서의 미국 예외주의, 트럼프 정책 영향으로 금년에도 지속될 전망 - 블룸버그**
(US Exceptionalism Is the Only Game in T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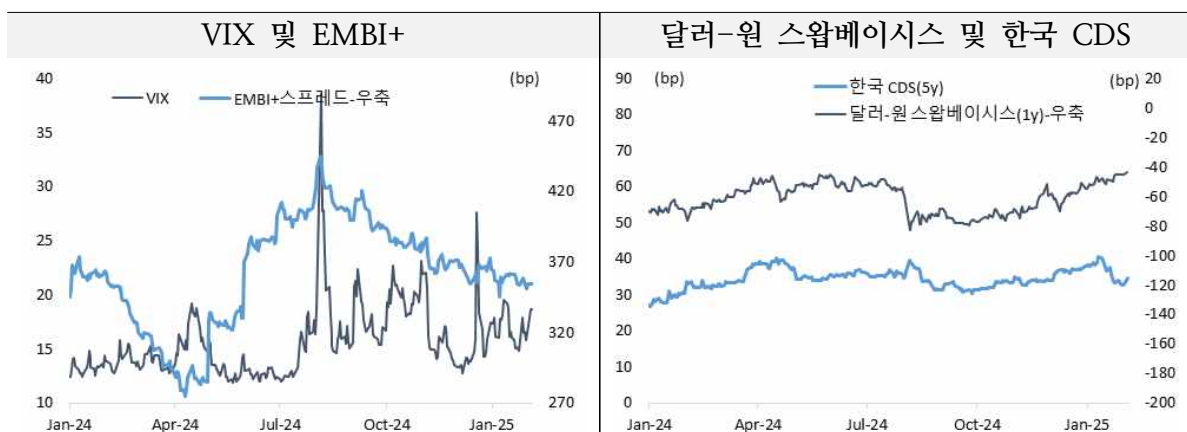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